

# 병든지구 살리는 예술잔치

## 제2회 광주비엔날레 37개국 참여 11월27일까지...전화황특별전 불화 눈길



전화작가 '대지구' 1979년

97KWANGJU BIENNALE  
광주비엔날레

제2회 광주비엔날레가 1일 개막했다. 오는 11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 중의공원 문화센터 등 71만평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지구의 여백'.

'지구의 여백'은 현재 지구가 당면해 있는 복잡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는 힘들, 무수한 욕망들, 균열들, 특이점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속도(水) △공간(火) △혼성(木) △권력(金) △성성(土) 등 음양오행의 다섯개 소전시로 구성되며 전세계 37개국 총 1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본전시와 더불어 특별전, 광주중립미술제, 기념전, 후

원전과 축제행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중 기념전의 일환으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에서 열리는 전화황특별전은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이 다수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젊은 한때 탁발행각 수행의 길을 걷은 바 있는 재일한국인화가故 전화황(1909~1996)씨는 '미륵보살' '대국관음' '사원의 풍경'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경숙 기자

광주비엔날레 전시 및 행사안내

대표전화 (062) 521-4627  
행사안내 (062) 524-4725  
PC통신 하이텔 go biennale  
E-mail biennale@bora.daum.co.kr  
인터넷 http://www.kwangjubienale.org

### 방송가 한가위특집 '풍성'

BBS 13~18일 교통등 10시간 生放  
불교TV 히말라야 라닥사원 르베키행

불교방송과 불교TV는 한가위를 맞은 각계각층의 모습과 세계 곳곳의 민속축제음악을 찾아가는 등 한가위맞이 잔치준비에 여념이 없다.

불교방송은 귀향과 귀경이 집중될 13일과 18일에는 10시간 생방송 '라디오 전국 연결 1부~10부' (PD 이영준, 황용관 외)를 통해 교통·생활·문화정보 등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한가위 밝은 달, 이웃과 함께' (PD 박상필), '동근달, 밝은 세상' (PD 이영준) 등 한민족이 갖는 세시풍속으로서 한가위의 의미를 되돌아볼 프로그램들을 마련 청취자들과 함께 한다. 불교TV도 라닥의 대표적인 사원이며 황성한 라마 당사 라벤이 주지로 있는 헤미스프사원을 집중 조명한다.

#### 한가위 방송시간표

BBS	15~16일	· '일사천재' 내고향 그곳엔 (11:15~12:00) · '음악여행-한가위만 간다라' 1부(12:10~13:00), 2부(13:05~14:00) · '민요노래방' 1부(14:10~15:00), 2부(15:05~15:45) · '달빛이 동요 한다' (16:05~17:00) · '동근달, 밝은 세상' (17:00~18:00) · '고향의 노래' (18:15~19:00)
	15~17일	· '한가위 밝은 달, 이웃과 함께' 1부(7:15~7:55), 2부(8:15~9:00) · '경천 속의 천화' (10:05~10:55) · '한가위 우리 열애 특선' (22:05~23:00) · '예민의 세계 민속음악 여행' 1부(24:00~01:00), 2부(01:00~01:55)
btv	15~16일	· 추석특집 '남마다 좋은날' (10:20~11:10), (10:00~11:00) · 특선외화 '명품의 까마귀' 1~2부(12:00~13:00)
	16일	· '명품사해 경사' (11:00~12:00)
	17일	· '대동국물이' (09:10~10:10) · 특선외화 '히말라야의 미소 라닥' (10:10~11:10)

## "불심담기니 연기가 살아요"

'용의 눈물' 이숙번 역  
선 / 동 / 혁

"제 좌우명이자 인생관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불교적인 사고와 시각을 생활에 반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한창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TV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PD 김재형)에서 중반부 폭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인물 이숙번 역을 맡고 있는 딸란트 선동혁씨(42). 거칠어 보이는 연기를 하고 분장을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임을 강조하는 그를 '용의



가 불교적인 드라마라는 것. '용의 눈물'로 주목받는 연기자가 됐지만 데뷔후 5년 동안의 무명시절이 가장 어려웠다고 회고하는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의 기도와 기대였다고 말한다. 그러한 어머니의 불심이 자신에게 연기자로서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고 시청자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것도 또한 보시고 공역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됐다고 한다.

### 인과응보 입장서 보면 드라마 더욱 흥미진진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역으로 형사 반장역과 스님역할을 꼽는 그는 만해스님이나 성철스님 서용스님 또는 법정스님 등의 생애를 그리고 싶다고. 탄허스님과 대만의 유명한 학자 임어담 선생을 존경한다는 그는 특히 탄허스님의 남다른 화엄경 해석이라든가 무절한 수행이 마음에 와 닿아 그분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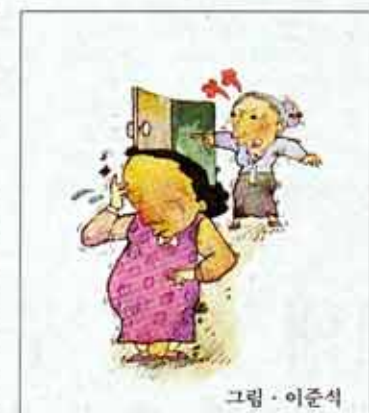
## 다시 찾은 인생 ② <끝>



이 미 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결혼한 대부분의 여자가 그렇듯이 난 남편을 낳은 사내아이를 낳고 싶었다.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렸다는 슬픔보다 아이를 잃어야 한다는 아픔이 더 컸다. 그러나 포기해 아만 했다. 아이도 나도 모두 건강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종교문제로 집안이 분란이 일고 있을때 건강 문제로 또다시 어수선하게하자 시댁에선 나를 남의 집사람 대하듯 하겠다. 시댁 식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결국 시부모님은 지쳐있는 나에게 당신 아들과 헤어지길 원하였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힘이 되어 주었다. 시부모님께 열정을 불태우면서까지 나에게 용기를 주려 했고, 끝내는 회사마저 그만두고 내 병상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며 나에게 설득을 했다. 남편은 또 '태려와 고생만 시키는구나'라는 말로 미안해했다.

## 시부모님을 미워하며 눈속임 노력을 하느라 지쳤는데 화엄경구절은...



그림·이준석

나는 남편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병상을 털고 일어나고 싶었다. 수술을 받고 열심히 방사선 치료를 다녔다. 동원치료를 하러 다니고부터는 남편과 함께 절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큼 마음이 편하다고 느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사실 난 그때까지만해도 속으로 시부모님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흡족한 며느리가 되려고 눈속임에 불과한 노력을 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었다.

부처님은 그런 날 푸짓기는 커녕 마치 그런 날 모두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지긋하게 내려다 보고 계셨다. 나를 이해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다. 그후 나는 남편에게 부탁해 조계사 인근에 있는 불교교양대학을 나가게 시작했다. 남편도 생소한 곳에 혼자 가는 것에 용기를 내지 못하던 나를 위해 눈코 뜰새없이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두번씩 꼭 시간을 내어 주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커져만 갔고, 불교에 대한 호기심

은 깊어만 갔다. 불교교양대학에서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불교사에 이르기까지 또 반야심경, 금강경, 아함경 등 다양한 경전을 2년여 동안 공부했다. 불교에 대해 어렴풋 같은 감을 수 있었지만 내 가슴 속에 전해져 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고, 나는 '그동안 무엇을 쫓으며 살아왔나'라는 의문으로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그런 나에게 큰스님 법문을 들으며 불것을 권했다. 불교용품점에서 권해준대로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한 스님의 법문테이프를 구입한 나는 앉으나 서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법문을 들으며 잠을 잤다.

그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휘부인 안개는 걷혀질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5년 전부터는 큰스님이 주석해 계신다는 전국의

사람을 찾아가 법회를 들었다. 그러다 광개왕이 갔을 때의 일이다. 고산스님이 법상에 오르시고는 대뜸 부처님 첫 사자 후를 밟아 말씀하시겠다며 '모든 중생류, 심지어 미물, 곤충, 초목, 총립에 이르기까지 그 불심 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 거를 왜 암흑세계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디. 그러다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부처님에게 매달리며 바라기만

할 뿐이죠'라고 법문을 시작하셨다. 가슴이 뜨겁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런 나의 심정을 눈치채도 채셨는지 스님은 '(화엄경)에 '얻는 복은 거러지복이요, 주는 복은 보살복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거러지복을 계속 지으려고만 하니 참 앞담만 노릇입니다'고 일침을 주셨다.

그때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무엇의 정체를 찾은 것 같았다. 허깨비로 살아온 나는 그래서 시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비로소 할 수 있었다.

박성희(서울 김서구 내발신동)

### 방송/단신

위성과의방송 실시후 케이블TV 가입 늘어

8월25일부터 시작된 EBS 위성과의방송으로 케이블TV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위성방송 수신료가 3백만원을 호가하는 등 고가여서 대부분의 가구가

케이블TV나 중계유선TV로 돌릴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측이다. 실제로 평소보다 가입신청률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청가구 1가구당 현재 171원 60전의 수신료를 받고 있는 불교TV역시 케이블TV 가입가구 증가 소식을 접하고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불교TV 프로그램 수출

불교TV는 2부작 다큐멘터리 '고려대장경'을 내년 1월1일 개국 예정인 대만 케이블TV 불교채널에 2년동안 특정 방영키로 계약을 맺었다. 또 일본 재일총본산 보현사 분원인 원효사에서 다큐멘터리 '발우공양' 남품을 의뢰해 수출할 계획이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보급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 안산 (0345)411-4580
- 목포 (0631)281-2534
- 부산 (051)634-5114
- 광주 (062)375-9586
- 속초 (0392)636-3923
- 인천 (032)461-3461
- 김릉 (0391)651-9317
- 영주 (052)734-3429
- 대구 (053)788-8008
- 대전 (042)625-1080
- 공주 (0416)55-0020
- 청주 (0415)63-3873
- 진주 (0591)747-0106
- 예산 (0458)33-5097
- 포항 (0662)252-7749
- 마산·창원 (0551)84-0735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전하는 분의 품위가 기억됩니다.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감지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